

각 종단 봉축 범위

자비로 고통 구하고 지혜로 무명 깨치네!

“선행으로 오염된 마음 씻자”



보성 <태고종 중점>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처님의 축복이 가득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써 인간의 고통을 벗겨 주시고 지혜로써 일체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들은 많은 고통과 어리석음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지극히 혼란한 말법(末法) 시대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하루빨리 불식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이타의 자비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과 이기심들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과 생각으로 동체대비심을 발휘하여 서로를 위하고 돕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정불국토를 이룩나가도록 합시다.

“동체대비로 이상사회 실현을”



도용 <천태종 중점>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태양이 어두운 밤을 깨뜨리고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듯이 지혜광명으로 미암(迷暗)의 우리 중생계를 밝게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중생계는 오욕탐심을 근본으로 하여 분노심과 우치심으로 서로 싸우고 해치고 죽이고 하는 온갖 죄업을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계와 물질문명에 예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주의, 환금만능주의, 향락지상주의가 온 사회에 팽배하여 부패는 만연하고 도덕성은 마비되고 있으며, 상호 반목과 대립, 갈등과 분규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격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보이신 동체대비의 정신과 자주, 평등의 이념과 상의상존(相依相存)의 인연법으로 살아가며 인간사회의 불안과 고뇌 암흑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겨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고 사회정화의 횃불이 되도록 함께 서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자리 밝혀 대자유 누리길”



각해 <진각종 중점>

원래 부처님께서 가심도 오심도 없이 항상 여여히 진리로 계시지만 무명에 가리워져 사바를 헤매이는 중생에게 진리의 빛을 보이게 하시려고 저인도 정반왕의 태자로 나투셨습니다.

석가모니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고행하심은 중생을 위한 대자비였고, 보리수 아래에서의 깨달음은 중생들에게 지혜광명이었습니다.

이 뜻깊은 오심은 모든 불자, 아니 온 인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 중생들의 탐진치로 인하여 오염되고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현상의 어느 것 하나라도 독단적으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연기와 인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인류구원의 대법기를 높이 들고 서원 정진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지혜의 연등을 높이 들고 자비의 연등을 널리 밝힙시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을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일체중생이 이익을 얻는도다”

고해중생 건지려 부처님 오셨네

“인내·정진으로 부처님 됩시다”

대천 <관음종 중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지 어언 삼천년/사바중생 제도에 실사이 없네/정축년 부처님 강탄을 봉축하여 등축을 밝히니/성스런 지혜광명이 사바세계에 두루하네/마르나 무에 물 오르듯 일체중생과/뭇 중생이 제각기 이익을 얻는도다/민족통일 성취를 기원합니다

구암 <대한법화종 중점>



거룩하신 덕상높아 동근달 밝아사라/삼계에 큰 스승 나무서가모니불/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들 귀의하여 무상도를 이루옵소서

혜안 <보문종 중점>



부처님오신날에는 내 삶의 평안을 위해 모든 이의 질서를 깨는 일을 삼가하여 지극

“극락·지옥 내마음에 있어요”

“분별심이 밝은 마음가리네”

“법의 등불 칠혹 어둠 길 밝히네”

록정 <총지종 중점>



오늘은 부처님께서 무명과 번뇌망상에 빠진 사바중생들을 제도코자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시며 일체 진리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오택약세의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는 참회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자대비한 마음 대신에 이기심으로 무장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기심과 아집을 버리고 제법실상을 직관하여 내 마음 바로 세우는데

동광 <총화종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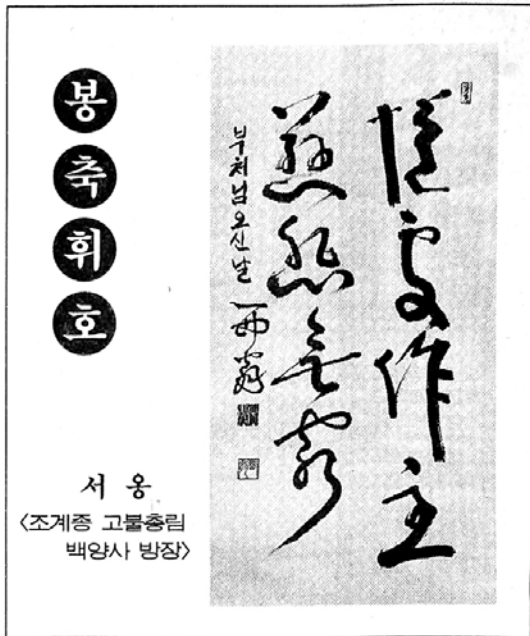


항상 스스로 등글고 밝아서 두루 비추고 있는데/삼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고 듣고 분별하고 아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그것으로 보아 씌워있기 때문에 밝고 오묘한 본체를 보지 못하는도다.

일공 <원종종 중점>



부처님 가신지 삼천년에 동근법의 해는 다시 동쪽에서 솟아오르네/우담발화꽃이 피여 향기가 세상에 가득하고



남북불교도 봉축 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은 사상의 자부이신 거룩한 부처님께서 무명속에서 해매이며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몸을 나투신 뜻깊은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고해의 무명중생들과 언제나 함께 하였으며 성스러운 진리만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법인이 있음으로하여 불교는 사바세계의 역사흐름과 더불어 중생구제의 대승보살행과 찬란한 개화발전의 길을 이어왔으며 민족자주정신과 문화의 기저를 이루어 왔습니다. 불기 2541년의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은 사바세계의 한생을 중생구제에 바쳐오신 부처님의 행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면서 분단의 가슴 아픈 설움을 가시지 못한채 남과 북의 모든 사찰들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동시법회를 갖고 사회와 중생을 위한 대승보살도의 실천행에 응맹정진할 서원을 굳게 하고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부처님전에 삼가 서원합니다. 우리불교도들과 7천만 겨레는 나라가 분단된 때로부터 5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7천만 겨레 통일조국을 발원 하옵시다

부처님, 발고여락의 이념이 실현된 통일조국, 불국정토를 일으켜 세우려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루빨리 성취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처님, 민족의 자활과 자립을 실현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염원에 원력을 내려주시고 위엄과 가피력을 주십시오. 단군이래 우리 나라의 민족은 언제나 하나였고 하나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화해화합으로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조국에서 복락을 누리거려는 불교도들과 겨레의 소망에 가호를 주십시오. 거룩하고 지혜구족하신 부처님, 우리나라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 겨레에게 거룩함과 지혜를 심어 주십시오. 저희들의 소망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처님전에 간절히 발원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남·북 봉축 불교도 일동

남측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철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박태호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6월 1일부터 비자 발급 개시!! 영남지방 불자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교의 나라 인도행 비자를 부산 주재 영사관에서 발급개시 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부산 경남 인도 명예 총영사관 총영사 류진수 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7층 TEL: 051-464-1881 FAX: 051-464-4786